

반도체난 완화에 신차효과 까지... 완성차, 실적반등 기대감

5개사, 지난달 세계판매 64만대

국내 완성차 업체의 발목을 잡아왔던 차량용 반도체 수급 공급이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르노코리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등 이른바 '르쌍제'가 신차 효과 등에 힘입어 반등에 나서는 등 전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살아나고 있다.

8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사는 지난달 총 64만여대의 완성차를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면서 실적 증가세를 기록했다. 넉 달째 실적이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최근 현대차가 진행한 프로모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는 지난 6일 2022 코리아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캐스퍼 2200여대를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최대 12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차량은 지난해 9월 이후 올해 10월까지 4만9000대 이상 판매될 정도로 인기 모델이지만 행사기간 계약하면 늦어도 2주 내로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는



쌍용차 토레스



현대차 캐스퍼

현대차 '캐스퍼' 차량 2주내 인도

**르노코리아 쿠페형 SUV XM3
지난달 1만9258대, 판매량 66% ↑**

**쌍용 토레스 흥행에 분위기 반전
글로벌시장 판매량 176% 증가**

**한국지엠 트레일블레이저 인기
2만6811대 판매, 전년비 290% ↑**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르쌍제도 인기 차종의 생산량 확대를 통해 판매량 회복세를 보

이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쿠페형 SUV XM3 인기로 지난달 1만9258대의 차량을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65.6%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XM3는 지난달 국내에서 전년대비 94.4% 증가한 1540대의 차량이 판매됐다. 여기에 지난달 출시한 XM3 E-TECH 하이브리드가 국내 시장에서 약 5000대의 사전 계약을 이끌어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심각한 출고 적체를 겪은 쌍용차는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쌍용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완화와 중형 SUV 토레스의 흥행으로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다. 쌍용차

는 지난달 글로벌시장에서 1만3186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75.9% 증가한 수치로 쌍용차의 월간 차량 판매 기준 최다치다. 구체적으로 내수에서 7850대, 해외에서 5336대의 차량 판매량을 기록했다.

쌍용차는 올해 초 내수와 수출 포함 7000여대 판매에 그치며 심각한 판매 악화에 시달렸다. 당시 쌍용차는 내수와 수출 포함 1만대가 넘는 출고 적체 현상에 시달린 바 있다.

한국지엠은 인기 차종인 트레일블레이저의 생산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초 부품 수급 문제로 생산량을 조절했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지난달 2만6811대로 전년대비 290% 늘어난 차량 판매량을 기록했다. 특히 수출 실적이 좋았다. 내수는 4070대(3.7% 증가)의 차량을 판매해 다른 완성차업체들보다 판매량이 적었지만 수출은 2만2742대로 전년대비 419% 급증했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동일한 차량 플랫폼을 공유하는 뷰익 앙코르 GX와 함께 총 1만7917대의 차량이 수출됐다. 이는 전년대비 335% 증가한 수치다.

특히 내년 창원 공장에서 차세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SUV) 생산을 앞두고 있는 한국지엠은 차량용 반도체 안정화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만이지만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내수 물량과 수출을 포함해 생산 물량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종류가 수십가지라는 점에서 수급난이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보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늘어나고 비틀고 접는 '미래 디스플레이'

LGD, 스트레처블 1단계 성과공유회 12인치 화면 14인치까지 늘어나면서 고해상도에 적응형 풀컬러 동시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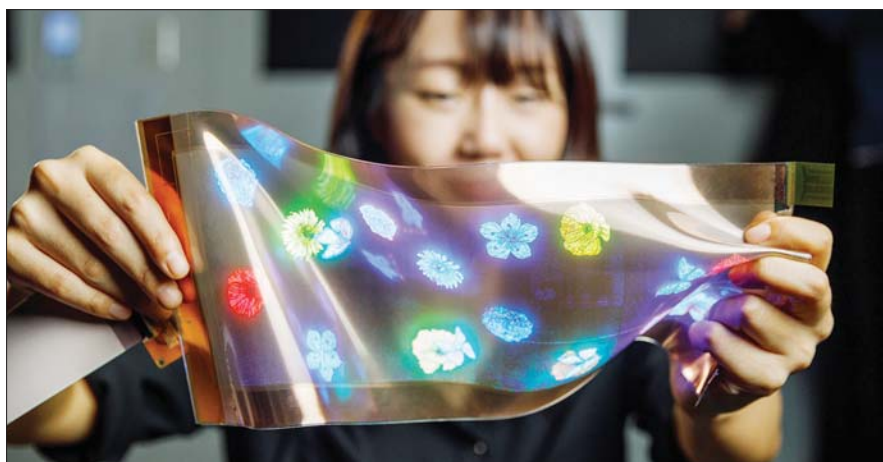
LG디스플레이가 완전히 자유로운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상용화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스트레처블 국책과제 1단계 성과공유회'를 열고 12인치 풀컬러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개발 사실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12인치 풀컬러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화면이 최대 20% 늘어나고 접거나 비틀기 등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어 궁극의 미래 디스플레이로 평가받는다.

LG디스플레이가 공개한 프로토타입(시제품)은 세계 최초로 ▲12인치 화면이 14인치까지 신축성 있게 늘어나면서도 (20% 연신율) ▲일반 모니터 수준의 고해상도(100ppi)와 ▲적녹청(RGB) 풀컬러를 동시에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LG디스플레이는 특히 유연성과 내구성,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기술적 난제를 극복했다. 콘택트렌즈에 쓰이는 특수 실리콘 소재로 신축성이



LG디스플레이가 선보인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시제품.

뛰어난 필름 형태의 기판을 개발해 유연성을 크게 높였으며, 40μm(마이크로미터, 100만분의 1m) 이하의 마이크로 LED 발광원을 사용해 외부 충격에도 화질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했다. 또, 기존의 직선 형태의 배선 구조를 S자 스프링 형태 배선 구조로 바꾸는 등 설계 최적화로 반복해 구부리거나 접어도 성능을 유지한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얇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피부나 의류, 가구 등 불규칙한 굴곡면에도 접착할 수 있어 향후 웨어러블, 모빌리티, 스마트 기기,

게이밍, 패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옷처럼 입거나 몸에 부착하는 IT 기기 시대를 가늠해 일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디스플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재난 현장에 있는 소방관 및 구급대원의 특수복에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화면을 울퉁불퉁한 버튼 형태로도 만들 수 있어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터치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도 활용 가능하다.

/김재용 기자 juk@

LG씽큐앱에 온보딩·간편추가 서비스 더해

실시간 배송 확인, 앱 연동 간편해져

LG씽큐가 제품 배송과 연동까지 한번에 할 수 있게 해준다.

LG전자는 8일 LG씽큐앱에 ▲고객이 구매한 제품의 실시간 배송상황 및 사용팁 등을 보여주는 '온보딩' 서비스 ▲배송완료 후 LG 씽큐 앱에서 클릭 한번으로 제품을 앱에 연동하는 '간편추가'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온보딩 서비스는 LG베스트샵이나 LG전자 홈페이지 및 렌탈 인증점에서 주문한 제품이 어느 배송 단계까지 와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고객은 준비중/준비완료/배송시작/배송완료 등의 배송현황과 도착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다.

배송을 기다리는 동안 구매 제품의

사용팁 및 설치가이드, 사용 후기와 인테리어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도 이용 가능하다. 콘텐츠는 푸리케어 오브제컬렉션 에어로타워, 코드제로 오브제컬렉션 M9 및 A9S, 푸리케어 듀얼정수기, 스탠바이미, 티운 및 티운 미니 등을 시작으로 대상 제품군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간편추가' 서비스는 번거로운 제품 연동을 해결해준다. LG 씽큐 앱에서 배송완료 알림을 확인한 후 화면 속에 생성된 '제품카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제품이 앱에 연동되는 서비스다. 다만, iOS 운영체제 기반 모바일에서는 별도로 Wi-Fi 설정을 해야 하는 일부 제품이 있으며, TV의 경우 전원을 켜 이용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재용 기자

'AMG G 63 효성 에디션' 신규색상 출시

더클래스 효성 '베이지 메탈릭'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한정판 '메르세데스-AMG G 63 효성 에디션' 신규 색상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더클래스 효성은 지난 9월 창립 19주년을 기념해 세 가지 컬러의 '메르세데스-AMG G 63 효성 에디션' 3종을 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된 한정판 색상은 고풍스러움을 더한 트레버틴 베이지 메탈릭이다. 실내는 '벵갈 레드'와 '블랙' 컬러를 적용한 게 특징이다.

내장재로는 최고급 소재로 꼽히는 나파 가죽을 주로 활용했고 AMG 퍼포먼스 스티어링 휠에는 카본파이버(탄소섬유) 및 다이아미카가 적용됐다. 외관은



더클래스 효성이 한정판으로 출시한 '메르세데스-AMG G 63 효성 에디션'.

22인치 AMG 5 스포크 단조 휠로 역동적인 포인트를 살렸다.

더클래스 효성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성과 희소성을 중시하는 고객들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대우조선, 2년 연속 수주 100억 달러 돌파

그리스서 LNG운반선 3509억에 수주

대우조선해양이 2년 연속 수주 100억 달러 돌파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카스로부터 LNG운반선 1척을 3509억원에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선박은 육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26년

하반기 선주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주한 LNG운반선은 17만 4000㎥급 대형 LNG운반선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자랑하는 고압 이중연료 추진엔진(ME-GI)과 더욱 고도화된 재역화설비가 탑재돼 있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스마트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인 축발전기 모터시스템(SGM)과 공기유탄시스템(A

LS) 등 연료 효율은 높이고 이산화탄소와 황산화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신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0월 안젤리쿠시스 그룹으로부터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작고한 그리스 선박왕 존 안젤리쿠시스 전 회장의 이름으로 특별 기부금 200만 달러를 받은 데 이어 곧바로 LNG운반선 1척을 추가 수주하면서 양사 간의 깊은 신뢰 관계를 다시 한번 굳건히 했다.

/양성운 기자